

김 보 훈(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박사)

미중 경쟁시대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소고



목 차

01. 들어가며

0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식

03. 중국의 주변안보 현황에 대한 인식

04.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05. 마무리 및 평가

Part 1

01. 들어가며

0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식

03. 중국의 주변안보 현황에 대한 인식

04.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05. 마무리 및 평가



面对欧亚变局，周边外交更重要

급변하는 유라시아 정세와 중요성을 더해가는 주변국 외교

随着乌克兰危机的不断升级、美欧与俄关系的全面破裂、拜登政府“印太战略”的翻新出台，以及一些国家内部政局的变动，一场二战后空前猛烈的欧亚变局轰然展开。中国作为亚洲国家，外交的基本立足点在周边地区，直接承受着这场变局的种种后果，也直接影响着这场变局的发展前景。在此背景下，中国的周边安全战略和亚洲外交布局将会发生怎样的变化，需要做出怎样的响应，本刊与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合作，走访了一些专家学者，请他们从不同角度谈谈看法。

——编者手记



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

受访嘉宾（按姓氏笔划排列）：

- | | |
|-----|-------------------------------|
| 冯玉军 |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
| 刘天聪 |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朝鲜半岛研究中心副主任、副研究员 |
| 安刚 | 《世界知识》杂志编辑、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客座研究员 |
| 李勇慧 | 中国社科院俄罗斯东欧中亚研究所研究员 |
| 吴怀中 | 中国社科院日本研究所副所长、研究员 |
| 张洁 | 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 |
| 杨成 | 上海外国语大学教授、上海全球治理与区域国别研究院执行院长 |
| 林民旺 |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 |
| 胡波 | 北京大学海洋战略研究中心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研究员 |
| 赵明昊 |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 |
| 翟崑 |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
| 樊吉社 | 中共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国际战略研究院教授 |

海南博鳌，博鳌亚洲论坛2022年年会定于2022年4月20至22日在这里举行。

편집자 주

우크라이나 전쟁, 서구와 러시아의 전면적인 갈등, 바이든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등으로 인해 유라시아 지역의 정세가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인 중국도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世界知识」은 칭화(清华)대 전략안보연구센터(战略与安全研究中心)와 공동으로 2022년 4월 '급변하는 유라시아 정세와 중요성을 더해 가는 주변국 외교'라는 주제로 학계 저명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随着乌克兰危机的不断升级、美欧对华关系的全局演变、拜登政府“印太战略”的翻新出台,以及一系列国家内部政策的变动,一场二战以来最强烈的欧亚变局正在展开。中国作为亚洲国家,外交的基本立足点在于周边地区,直接承受着这场变局的种种影响。也直接影响着这场变局的发展前景。在此背景下,中国的周边安全战略和对外政策布局将会发生怎样的变化,需要做出怎样的调整,本刊与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合作,采访了一些专家学者,请他们从不同角度谈谈看法。

——编者手记



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

受访嘉宾(按姓氏笔画排列):

- 冯玉军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 刘凤翥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朝鲜半岛研究中心副主任、副研究员
- 史 刚 《世界知识》杂志编辑,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客座研究员
- 李海建 中国社会科学院俄罗斯东欧中亚研究所研究员
- 吴怀东 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副所长、研究员
- 张 洁 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
- 杨 成 上海外国语大学教授,上海全球治理与区域国别研究院执行院长
- 林茂旺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
- 胡 波 北京大学海洋战略研究中心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研究员
- 赵明昊 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
- 曹 崑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 黄晋仕 中共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国际战略研究院教授

대담자 명단

평위쥘(冯玉军)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류텐충(刘天聪)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센터(朝鮮半島研究中心) 부주임

안 강(安 剛)

「세계지식」 편집인 겸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객원연구원

리용후이(李勇慧)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우후이중(吴怀中)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

장지에(张 洁)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전략연구원 연구원

양 청(杨 成)

상하이외국어(上海外国语)대 교수

린민왕(林民旺)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후 보(胡 波)

베이징(北京)대 해양전략연구센터 주임

자오밍하오(赵明昊)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디 쿤(翟 崑)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판지서(樊吉社)

중앙당교(中共中央党校)/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교수

隨着馬六甲危機的不斷升級、美歐關係的全面破裂、阿盟政府“印太戰略”的重新出爐、以及一些國家行政政策的變動，一場二邊與多邊並行的歐亞變局將全面展開。中國作為亞洲國家，外交的基本立足點在周邊地區，直接承受着這場變局的種種衝擊，也直接影響着這場變局的发展前景。在此背景下，中國的周邊安全戰略和對外外交布局將會發生怎樣的變化，需要做出怎樣的調整，本刊與清華大學戰略與安全研究中心合作，邀請了一些專家學者，讓他們從不同角度談談看法。

——編者手記

世界知識

清華大學戰略與安全研究中心

受訪專家（按姓氏筆名排列）：

馮玉軍 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副院長、教授
劉天聰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朝鮮半島研究中心副主任、副研究員
安 剛 《世界知識》雜誌編輯、清華大學戰略與安全研究中心客座研究員
李勇慧 中國社科院俄羅斯東歐中亞研究所研究員
吳懷中 中國社科院日本研究所副所長、研究員
張 潔 中國社科院亞太與全球戰略研究院研究員
楊 成 上海外國語大學教授、上海全球治理與區域國際研究院執行院長
林民旺 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研究員
胡 波 北京大學海洋戰略研究中心主任、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研究員
趙明昊 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研究員
翟 崑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教授
樊吉社 中共中央黨校/國家行政學院國際戰略研究院教授

Part 2

01. 들어가며

0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식

03. 중국의 주변안보 현황에 대한 인식

04.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05. 마무리 및 평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성격

• 인태 지역 복귀에 대한 미국의 굳은 결심 표명



우크라이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바이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의 발표는 미룬 반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예정대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중심을 옮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역내 국가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보다도 먼저 발표되었으며, 발표주체도 백악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미국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성격

• 미국의 글로벌 전략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단순히 지역적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미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통제력과 인도·태평양을 긴밀하게 연계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장(Chapter)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볍고 반대로 후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성격

•대중국 견제 전략



앞으로도 미·중 사이의 전략 경쟁은 아태지역이 주무대가 될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도 아태지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중 략) 지난 2022년 2월 11일 백악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 발표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아태지역이 '영향력 균형'을 확보해야 할 핵심지역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의) 액면만 놓고 본다면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겨냥한 색채를 축소·약화시켰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는 내용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중국을 고려한 사정이 읽혀지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가치 기준에 따라 '중국의 주변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성격

•대중국 견제 전략



이번 보고서는 '영향력 균형', '세력 범위' 등과 같은 표현들을 새롭게 사용하여 중국을 '역내 악당'으로 만들었으며, 중국이 이웃국가들에게 '경제적 압박과 보복'을 가하여 경제문제를 '안보화'시켰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중 략)

해상활동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른바 '민간인 안전에 대한 도전(civilian security challenges)'을 강조하면서, 파트너십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활동의 확대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불법 어로'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성격

•대중국 견제 전략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일정한 지리적 범위 안에 묶어두려 하기보다는 정치·군사·과학기술·공급망·인프라·동맹 지지도·이데올로기·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 등 각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고자 하고 있으며, 미중 양국이 각자의 장점과 능력을 발휘하여 경쟁한 결과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될지, 역내 인심을 누가 얻게 될지를 지켜보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성격

•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특징(트럼프 정부와 비교)



첫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군사적 견제수단보다는 체계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내의 '만형(老大)'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낮은 자세(拜托大家)'로 태세를 전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중국과 대결 또는 경쟁하는 전면에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하여 더욱 강한 지속가능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러 분야에서 공여, 투자, 차관 제공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역내 곳곳에 (지원과 영향력이)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거의 외면하였던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성격

•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특징(트럼프 정부와 비교)



다섯째, 유럽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를 중시하여 '전략자원의 전지구적 상호 연계 및 연동'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AUKUS와 QUAD, 미국-아세안 관계 등을 매개로 이미 매우 복잡한 지역안보 구조와 협력 메커니즘에서 새로운 경합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확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저탄소,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재 양성) 등 주요 어젠다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어젠다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관여와 역량 투입 확대를 독려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비용을 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Part 3

01. 들어가며

0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식

03. 중국의 주변안보 현황에 대한 인식

04.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05. 마무리 및 평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

•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위기의 고조는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이 매우 격렬하며, 유럽의 안보상황도 강력한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상당기간 동안 미국의 전략적 역량과 자원을 견제하고 분산시킬 것입니다.



역내 불안요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급작스러운 철군과 탈레반의 재집권에 따른 아프간의 정세 변화에 이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지역 무력충돌, 카자흐스탄 정세 불안과 최근 국제 이슈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유라시아 전역이 긴장과 충돌, 불안정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국지적 질서교란(局部失序)'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중 략), 이러한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

•러시아



러시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덕분에 아프가니스탄 현안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략) 한편 현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두 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높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지난 1월 정국 혼란 이후 표면적으로는 '다원적 균형외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러시아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라시아 지역 질서 구축에 대해 러시아는 분명히 '(과거 질서를) 해체(破)'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立)'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구소련의 공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으며, 안보 마지노선 역시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동북아 지역

•일 본



(전 략) 호주는 이미 선택을 마친 상황이고, 일본도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아태지역 각종 의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전략적인 기획력과 외교적 활동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영향력 및 대 중국 외교역량 역시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역내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주변안보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일 본



셋째,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장거리 타격능력을 포함한 첨단 군사역량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 도서지역(오키나와 주변) 방위, 타이완 문제 등을 매개로 중국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권문제' 등을 내세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중 경제안보전략'도 빠르게 추진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부분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 한국과 한반도



(전 략) 한국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20대 대선이 끝난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친미 성향의 발언을 적지 않게 쏟아내었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중 관계의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중 양국은 서로간에 이익이 깊이 얽혀있고, 전략적으로도 상호 의존적이며, 대중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한국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지역

• 한국과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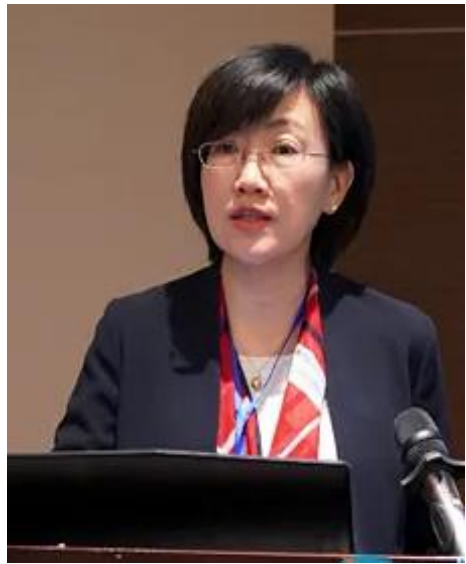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 정세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략) 예측 가능한 미래의 범위 내에서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중대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 불안은 여전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도 유동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향후 미중 양국 사이에 균형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수시로 대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사태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핵 등의 문제를 핑계삼아 한미일 협력 내지 동맹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역내 불안정성과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웃국가들 간의 관계에도 심각한 갈등과 균열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

• 동남아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세안(ASEAN)에 주된 방점을 찍고 있지만, (중략) 이번 전략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보이며,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다만 미국 해안경비대와의 협력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권익을 수호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아세안측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아세안의 역내 중심적 역할(centrality)이 강대국들간의 경쟁 심화와 QUAD 및 AUKUS의 역할 강화로 인해 약화되거나 주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해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3국과 여타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균열이 심해져 아세안의 단합이 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

• 남아시아



인도 국내에서는 인도 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의 힘은 계속 약화되고 있는 반면, 계속해서 집권 중인 인도 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은 기본적인 외교기조가 친서방적입니다. 더욱이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과 양국 간 국경분쟁으로 인해 중·인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와 미국의 남아시아·인도양 전략은 점진적으로 접근해가고 있으며,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협력하려는 경향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양에서 인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인도의 인권문제나 러시아산 무기 수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특수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

• 남아시아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남아시아 소국들은 '특정 강대국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超脫)' 중국을 포함한 특정 강대국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지지 표명을 점차 삼가하고 있으며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향후 중국과 이들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복잡한 요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남아시아에서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아시아 정세를 형성해가는 중국의 역량은 점차 강해지고 있고, 인프라와 민생 등 분야에서 지원역량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대외정책의 다변화 추세, 중국·이란 관계의 중대한 돌파구 마련,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등은 모두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주변국 외교와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더 많은 기회와 공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종합적인 주변안보 현황

- 东急西乱, 北弛南紧



Part 4

01. 들어가며

0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식

03. 중국의 주변안보 현황에 대한 인식

04.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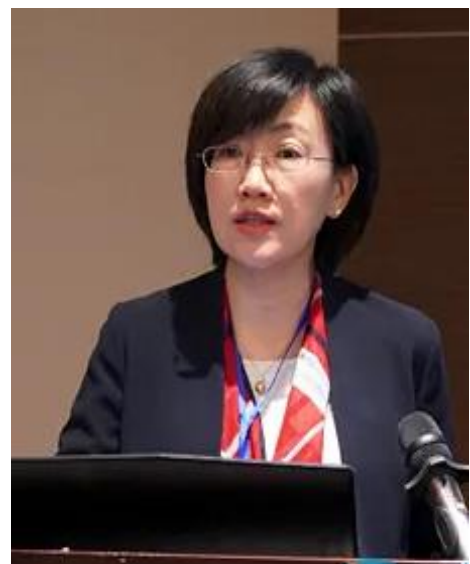
05. 마무리 및 평가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 전략 재정비 필요



이러한 변화는 아태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으며, 미·중 관계의 변화는 역내 핵심의제들의 논의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주변국 외교전략을 다시금 재고하여, 역내에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국가별·지역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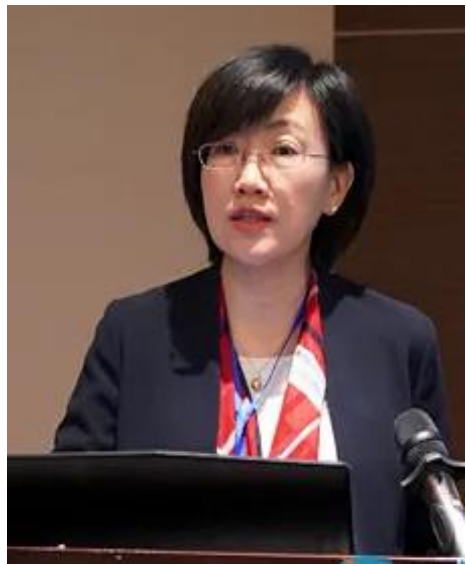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주변 안보상황은 복잡하고 변화도 많았으며 다소 불안정했던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면서 역내 협력을 위한 양호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중국의 굴기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중국은 전략으로 전략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주변국 외교정책 경험을 잘 활용하고, 주변외교 전략을 정비, 최적화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져올 충격과 영향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 전략 재정비 필요



구체적으로 중국의 주변국 외교안보 전략은 '주변운명공동체(周边命运共同体) 건설'을 전체적인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다음 3가지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전략적 목표를 총괄하고 목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해, 목표들 사이의 충돌로 야기될 정책효과의 반감과 대외적인 신호의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지만, 동시에 안보 마지노선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주변국 민심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외교력·경제력·군사력 등의 다양한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주변국 외교의 3대 정책과 아시아 신안보관을 지침으로 삼아 (중 략) 일대일로를 활용해 주변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생 프로젝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변국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데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력 강화도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 전략 재정비 필요



미중 경쟁과 주변국 외교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 둘을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다'는 논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초하여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며, 어떻게 양자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국 외교는 조금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으며, 전략도 최적화, 정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디지털 경제,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건설 표준 등의 분야에서 내놓고 있는 새로운 정책도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반부패, 해양안전, 불법어로 등의 구체적인 쟁점들을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해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 전략 재정비 필요



아시아가 통일성보다는 파편화와 개별국가화 경향이 훨씬 더 큰 만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통일적인 아시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방향만 놓고보면 상대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 략) 주변 외교환경의 각 방향별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여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외교전략(一域一策)'을 수립하고, (중 략)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중 략) 중국은 이와 같이 고도로 복잡화된 전략적 압박 상황과 자신의 주변 안보환경이 끊임없이 위축되고 있는 추세를 직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능력과 경제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중 략) 또한 미국이 하는 방식을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프로젝트라도 추진하게 되면 일정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중국 특유의 실용정신의 민생의식으로 주변국의 진심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지역별 전략 - 러시아



중국은 러시아와의 견고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질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역할을 활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은 좇고 해가 되는 것은 피해가야 합니다.

중러 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동진 등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어서 상호 협력할 여지가 많고 아태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나가야 하지만, '집단안보'의 함정에는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국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와 아세안,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등 지역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극 개발 및 항로 등과 관련해서 중러 양국과 제3국 사이의 다자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항구 현대화, 항로공유, 법적분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 지역별 전략 - 동북아



우리는 역내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협력하여(美主日协) 이끌어가는 형태의 반중국 진영'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변국들과의 화합을 최대한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일 양국 관계만 놓고 이야기하면,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2022년)을 계기로 적절한 시기에 고위급 교류와 회담을 진행하여 새로운 정세 하에서 예측가능한 중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키고, 세계 및 역내 현안에 대한 정책협력을 강화하며, 코로나 종식 후에는 양국 간 경제·무역과 인문협력도 한 층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지역별 전략 - 동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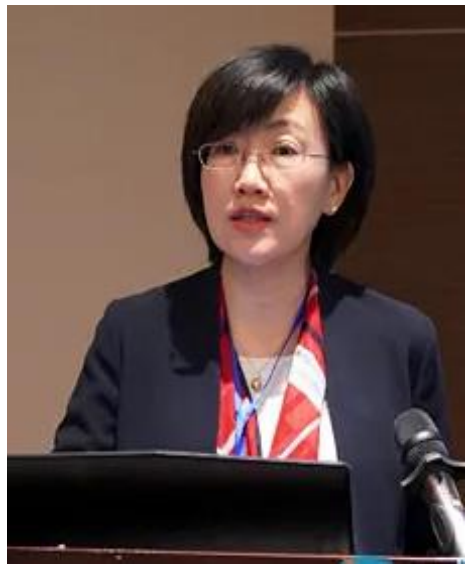


둘째,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와 전략적 소통을 원만히 하여 양국 관계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화해와 담판을 촉진하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 지역별 전략 - 동남아



셋째, 다양한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동안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아세안이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는 총체적인 지역구도를 계속 지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국가별, 지역별 정책을 통해 더욱 풍부한 '하위 역내협력 메커니즘(次区域合作机制)'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지역에서 '란창-메콩 협력(Lanchang-Mekong Cooperation)'과 '남중국해 연안국가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다른 역내 지역의 안보 및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지고 있는 (중국을 배제시키는) 배타성과 집단화를 상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지역별 전략 - 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견이 많은 오래된 문제는 그 자체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상을 유지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특정) 의제로 인해 대국관계가 장기간 경색되거나 소모되도록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변수가 생기게(日久生变)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주변국들을 성의를 다해 친밀하게 대하고 혜택을 베풀면서 포용한다'라는 '친성혜용(亲诚惠容)'의 외교기조를 견지하면서, 주변국들에게도 친성혜용의 자세로 중국을 동일하게 대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친성혜용'이 '상호호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Part 5

01. 들어가며

0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식

03. 중국의 주변안보 현황에 대한 인식

04. 중국의 주변안보 전략 평가

05. 마무리 및 평가

多谢合作